

'주체적 인간', 붓다가 보인 新 인간상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3. 붓다와 보살(菩薩) ④

새로운 이상적인 인간상의 등장

근본불교의 자기 비판 가운데서 대승불교의 길을 찾으려는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 보았지만 지금 대승불교가 새롭게 표방하고 있는 보살의 이상(理想)도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

보살의 이상은 잘 알려져 있듯이 예부터 자각(自覺)과 각타(覺他)로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상구보리(上求菩提) (위로 깨달음을 구한다) 하회중생(下化衆生)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라고 표현 할 때 그 내용은 전혀 같다. 즉 자기의 깨달음과 함께 남의 깨달음도 실현한 자, 자기의 구제에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구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 양면이 상반(相反)되는 가운데 보살의 길이 있다. 오히려 자각(自覺)보다는 각타(覺他)에, 상구보리보다는 하회중생에 그 관심을 집중하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 보살이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살의 이상을 새롭게 불교 속에 가져온 흐름이 대승불교이다.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상을 새로이 표방한 점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자주 보살승(菩薩乘)이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면 대체로 대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러한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온 것일까.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새로운 관념을 감히 불교 속에 내세웠을까.

이러한 것을 찾아서 올라가면 또 당연히 근본불교가 내포(內涵)하고 있었던 역사적 제한(制限)에 생각이 닿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역사적 제한이 그 후에 불교인 자신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비판되었을 때 그곳에서 새롭게 취해진 것이 보살의 이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또 대체 근본불교는 이러한 이상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될 어떠한 역사적 제한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었을까.

인격 독립의 요청 밑에서

그 점에 관해서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법구경(法句經)>의 '자기품(自己品)' 이라는 제목의 한 구절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의처(依處)는 자기뿐이다.
자기 외에 어떠한 의처(依處)가 있겠는가.
자기가 능히 조어(調御) 되었을 때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처(依處)를 얻는 것이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더러워지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해진다.
사람은 각자 스스로 정淨(淨)하기도 하며 부정(不淨)하기도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는 할 수 없다.
비록 어떠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리라.
사람은 능히 자기의 의무를 알며
언제나 자기의 의무에 전심(專心)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러한 구절은 근본불교가 얼마나 개개의 인격(人格)의 독립을 강조한 종교인이나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는 본래 인간형성의 가르침이다. 범부(凡夫)인 인간이 차츰 자기를 형성하면서 마침내 붓다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에까지 도달하려고 한다. 그것이 불교의 전도정(全道程)이다.

그런데 붓다는 이러한 길을 닦아 가는데 있어 그 모든 책임을 자기 한 사람의 노력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신(神)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祈禱)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기적(奇蹟)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이성(理性)만을 연마하여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보며 거기에 자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이런 것을 여기서 제시한 한 구절은 "자기의 의처는 다만 자기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한 구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또 생각해보면 붓다가 그 입멸(入滅)에 앞서 아난다를 위해서 설법하였다는 소위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 의 가르침도 역시 이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대는 여기에 스스로를 주(州)로 하며 스스로를 의소(依所)로 하지 않으며 법을 주(州)로 하며 법을 의소(依所)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의소(依所)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의소(依所)로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좋으리라."

붓다의 가르침은 틀림없이 이러한 길의 가르침이었다. 그 길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인주의(個人主義)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라고 하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표현



천안 각원사의 대불. 불교는 본래 인간형성의 가르침이다. 범부가 자기를 형성하면서 마침내 붓다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 불교이다.

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란 것은 반드시 일괄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라고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자유로움과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격적 주체를 확립하는 일 없이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군중을 떠나서 사회의 바깥에서 서서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귀추(歸趨)를 생각한다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또한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또 붓다의 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인격적 주체라는 것의 관념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

사상(思想)의 역사가 증언(證言)하는 바에 따르면 개인의 사상이란 것이 비로소 나타난 것은 이 시대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다만 전승(傳承)이 있었으며 관습(慣習)이 있었으며 신화(神話)가 있었다. 개인은 이러한 압도적(壓到的)인 힘 밑에 있으면서 다만 전승을 이어 받으며, 관습대로 살며 신화 그대로 생각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전승의 밖에 서서 생각하며 관습의 밖에서 행동하며 신화를 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개개인의 인격(人格)이 나타난 것이다.

자이나교(敎)의 교조(敎祖)인 지나(Jina)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소위 순세외도(順世外道)의 아지타(Ajita)도 그런 가운데 하나였다. 소위 순세외도(順世外道)의 아지타(Ajita)도 그런 사람이었다. 불가지론(不可知論)을 설명한 산자야(Sanjaya)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붓다는 이러한 개개인의 인격의 가장 큰 존재이며 불교는 이러한 개개의 인격에 흐르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붓다의 가르침이 '주체적 인격'의 확립을 매우 강조하였다란 점은 정말로 당연하며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맹물 술잔치

중국의 고전(古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야겠다. 하루는 임금님이 그의 대신각료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후 궁궐 어전에서 저번 잔치를 벌일 생각이다. 다만 참석자는 대신각료들로 국한해 조촐한 모임이 될 것이다. 대신들은 각자 집에서 아끼는 술이 있거든 한 병씩만 가져오도록 하라. 커다란 향아리를 준비해 둘 터이니, 그 술독 향아리 안에 준비해 온 한 병의 술을 부어 모두가 나누어 마시도록 하자. 다만 두 병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아끼는 명주(名酒) 한 병씩만 가져와 술독 향아리에 부으면 된다."

하여 사흘이 지난 날 저녁에 대신들은 너나없이 술 한 병을 들고 와 어전에 마련된 술독 향아리에 어김없이 부어 넣었다. 대신 각료들의 준비해 온 술 빛은 작업이 이내 끝이 났다. 임금님은 대신들에게 술잔을 골고루 나누어 준 후, 술향 아래에서 한 잔씩 떠서 요즈음처럼 부러보게 의뎡한 모양이다.

그런데 명주(名酒)로 어우러진 질은

행복타령

미운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웃 모임에서 단체 생활, 직장도 모임에서도. 가족 사이에도 가까움과 멀어짐이 있게 마련이요, 친인척 간에도 반가운 사람과 별로인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십상이다. 미운 사람 한 명쯤은 언제나 생명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어디 그뿐인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빛과 어둠처럼 번갈아가며 찾아온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팔고(人生八苦)'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괴롭다(怨憎會苦)고 했을까? 그렇다면 괴로움의 반대, 미움의 반대는 즐거움이요, 반가움이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덜 미워하며 즐겁게, 반갑게, 그런 도반(道伴)자들의 만남이 줄지어 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지만 꿈과 현실은 어둠과 빛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기 마련이다. 고단하고 팍팍하게 삶의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어설픈 삶을 까불어 봐도 쪽정이

조직을 쪼먹는 것은 내부 요인 많아

세상은 바야흐로 노력한 자의 몫

술 한잔이 나아할 술잔은 맹물 맛 그대로였다. 술이 아닌 맹물이었던 것이다. 임금님의 명령이요, 임금님과 함께하는 만찬 자리였다. 대신들이 가져온 술들은 모두 가보(家寶)급의 명주들이어야 하지 않았는가.

대신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이 맹물을 명주병에 담아 간다고 해도, 어차피 큰 향아리 속에서 희석될 것이니 절대 들통날 리 없겠지.' 맹물을 들이킨 임금님도 놀랐지만, 관습의 밖에서 행동하며 신화를 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개개인의 인격(人格)이 나타난 것이다.

자, 이쯤해서 고전에서 현실로 돌아와 보자. 색깔과 무게는 다름이 모르지만 맹물 대신들은 수두룩할 터이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 그 조직을 쪼먹고 기울게 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원인이 더욱 많은 법이다. 칭찬에도 거짓과 진실이 있고, 비판말에도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있는 법이다.

희생과 봉사에도 이름 석 자가 따라다닐 수 있고, 종교의 신앙에도 열음과 두터움이 끼어올 수 있는 것이다. 내 주변을 살피기 전에 나는 맹물 쪽인지, 아니면 명주(名酒)쪽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만을 만나야하는 절망감, 들레를 휘저어 봐도 손가락에 감겨오는 것은 냉랭하고 차가운 어둠쯤기 뿐. 하여 그들을 위해 오감(五感)을 만족시키는 행복타령을 늘어놓을까 한다.

행복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행복은 누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두 손바닥을 활짝 펼쳐보자. 열 개의 손가락이 달아나지 않고 온전한지, 그리고 손뼉을 크게 쳐 보자. 그리고는 손가락을 하나에서 열까지 세어 보도록 하자. 하나에서 열을 셀 수 있다면 당신의 시력엔, 당신의 손가락엔 이상이 없는 거다. 손뼉을 쳤다면 두 팔이 건강하다. 그 손뼉 치는 소릴 들었다면 당신의 청력도 건강하다.

자, 이제부터 두 팔 활짝 벌려 두어 번 만세를 외치며 한 걸음쯤 앞으로 전진해 보자. 당신은 살아 있고, 당신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게으름은 병이다. 일어서고 볼 일이다. 주머니밭이라도 불어대며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세상이 온통 소가죽으로 덮여있길 바라지 말자. 내 발에 맞게 소가죽으로 신발을 맞춰 신으면 그만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노력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여기기에 모든 직위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중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高僧長老團, 世界佛敎考試委員會,
大韓佛敎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敎元老長老團, 韓國佛敎나라사랑聯合協議會, 韓國佛敎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